국내
마감시황

2026.2.19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코스피 5,600pt선 돌파

삼성전자 19만원 기록하며 신고가 랠리 지속
코스닥 강세에 장중 매수 사이드카 발동

주요 지표 일간 변동

KOSPI	KOSDAQ	KOSPI200
5,677.25pt (+3.09%)	1,160.71pt (+4.94%)	840.24pt (+3.15%)
달러-원 환율	**韓 10년물 국채 금리**	**S&P500 선물**
1,446.70 원 (+2.1 원)	3.5410% (-3bp)	6,906.50pt (+0.18%)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주요 수급 동향

	KOSPI	KOSDAQ	KOSPI200 선물
개인	-8,606 억	-18,308 억	-1,340 억
외국인	-9,179 억	+8,570 억	+4,287 억
기관	+16,377 억	+10,429 억	-2,910 억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KEY DRIVER

- 금일 국내 증시는 설 연휴 동안의 대기 수요가 유입되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연휴 기간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美 CPI와 견조한 고용지표가 확인되면서 투자심리가 회복됐습니다. 美 소프트웨어 기업 매도세가 다소 진정됐고, 메모리 반도체 주가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우리시장에서도 삼성전자가 코스피 상승을 견인하는 가운데, 코스닥 활성화 정책 기대감이 부각되며 코스닥이 5% 가까이 반등했습니다. 이날 KOSPI는 3.09%, KOSDAQ은 4.94% 올랐습니다. 금일 KOSPI 거래대금은 약 28.6조원, KOSDAQ은 약 14.3조원을 기록했습니다.(KRX 기준)
- 외국인은 KOSPI를 9천억원 가까이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KOSPI에서 운송장비/부품과 화학 업종을 매수했고, 전기/전자와 금융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반면, 기관은 KOSPI에서 1.6조원대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기관은 전기/전자와 금융 업종을 매수했고, 기계/장비와 IT 서비스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거래대금 증가와 주요 증권사의 주주환원 정책 발표에 증권주가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HBM 공급가격 인상과 AI 투자심리 회복되며 반도체주가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해양 행동계획'에서 동맹국과의 조선업 협력 내용이 언급되자 국내 조선주가 반등했습니다. 코스닥 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 소부장이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지난주 강세였던 유통과 통신주에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했습니다.
- 주요 종목 중에선 삼천당제약(+19.44%), 미래에셋증권(+14.45%), 삼성전자(+4.86%)가 올랐고, SK텔레콤(-5.78%), 신세계(-2.75%), 신한지주(-2.15%)가 내렸습니다.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